

영어 수식어와 결속현상

임 경 섭

1. 서 론

이 논문의 목적은 핵어중심 구구조 문법(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이하 HPSG라 칭함)의 틀 안에서 영어 수식어 구문 속의 대명사 일치 현상과 분사 구문의 결속 현상을 분석하고 설명하고자 함이다.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예문 (1)의 주절과 종속절의 대명사 일치 현상이다.

- (1) a. If John_i is around, he_i will do it.
- b. If he_i is around, John_i will do it.
- c. John_i will do it if he_i is around.
- d. *He_i will do it if John_i is around.

수식어인 종속절의 주어와 핵어인 주절의 주어 사이에 통사적인 일치가 이루어 진다. 예문 (1a,b)에서는 수식어인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 사이에 항상 통사적인 일치가 이루어 졌다. 이때의 수식어는 주절을 선행하고 있다. 반면에 예문 (1c,d)에서는 일치 현상이 항상 이루어 지지 않는다. 즉 예문 (1c)는 정문인 반면에 (1d)는 비문이다. 이때의 수식어는 주절 뒤에 위치한다. 또 다른 하나의 현상은 예문 (2)의 분사 구문의 결속 현상이다.

- (2) a. While scratching himself/*herself, John kicked Mary brutally.
- b. While scratching herself/*himself, Mary was brutally kicked by John.
- c. While recovering from his/*her illness, John constantly irritated Mary.
- d. While recovering from her/*his illness, Mary was constantly irritated by John.

예문 (2a,b)에서 수식어 구문 속의 조동사인 재귀 대명사는 주절의 주어에 의하여 통제되고, 예문 (2c,d)에서의 수식어 구문 속의 대명사는 주절의 주어와 동일지표 되었다. 이는 HPSG의 결속 이론의 원리 A와 B가 적용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이 논문은 2장에서 수식어 구문에서의 일치 또는 결속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HPSG가 제시한 결속 이론을 간단히 살펴 보고, 3장에서 HPSG의 일치(agreement) 이론과 화용적인 이론을 통합하여 수식어 구문의 일치 현상을 설명하고, 서술 전치사를 이용하여 HPSG의 결속 이론으로 분사 구문의 결속 현상을 설명하려고 한다.

2. HPSG의 결속 이론

결속 원리란 *himself, each other* 등과 같은 조용사(anaphor)의 의미 해석을 위한 원리이다. 예문 (3)에서 조용사와 선행사(antecedent) 사이의 관계가 결속 원리에 의해 정의된다.

- (3) a. John_i likes himself_i.
 b.*John_i knows Bill_j likes himself_i.
 c.*John_i likes him_j.
 d. The children_i likes their_j friends.
 e.*He_i likes John_j.

변형 문법 시절부터 오늘날의 GB 이론에 이르기까지 결속 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의 분석 방법들이 제시되어 왔다. 이들 분석의 한가지 공통점은 거의 모두가 근본적으로 형상적인 성분 통어(configurational constituent-command) 개념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단지 성분 통어의 정의만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를 뿐이다. 즉 GB 이론에 의하면, 예문 (3)의 조용사는 지배 범주 안에서 결속된다는 조건에 의하여, (3a)의 *himself*의 지배 범주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결속되었기에 정문이고, (3b)의 *himself*의 지배 범주는 내포문이고 *himself*는 그 문장 내에 결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문이다. 대명사류는 지배 범주 안에서 자유롭다는 조건에 의하여, (3c)의 대명사 *him*이 지배 범주인 문장 안에서 결속되었기 때문에 비문이나, (3d)의 대명사 *their*의 지배 범주는 *their friends*이고 *friends*가 지배자이기 때문에 결속되지 않기 때문에 정문이다. 또 지시적 표현은 어디서나 자유롭다는 조건에 의하여, (3e)의 지시적 표현 *John*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비문이다.

Pollard와 Sag (1992)은 아래의 예문 (4,5)를 제시하며 이러한 형상적 성분 통어의 개념에 토대를 둔 결속 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4) a. [John]_i's campaign requires that pictures of [himself]_i be placed all over town. (Lebeaux 1984:358)

b. The agreement that [Iran and Iraq]_i reached guaranteed [each other]_i's trading rights in the disputed waters until the year 2010.

(5) a. John_i was going to get even with Mary. That picture of himself_i in the paper would really annoy her, as would the other stunts he had planned.

b.*Mary was quite taken aback by the publicity John_i was receiving.

That picture of himself_i in the paper had really annoyed her, and there was not much she could do about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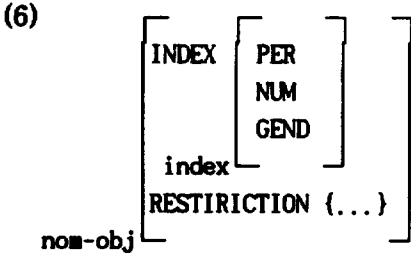
예문 (4)에서 선행사가 조용사를 성분 통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용사와 선행사 사이에 결속 관계가 성립하고 있다. 즉 (4a)의 그림 명사 재귀사 *himself*와 그의 선행사 *John* 이, (4b)의 상호 대명사 *each other*와 그의 선행사 *Iran and Iraq*가 성분 통어의 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결속되어 정문이다. 따라서 성분 통어의 개념에 의존하는 결속 이론은 이 현상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예문 (5a)에서 조용사 *himself*를 결속하는 선행사가 그 문장 안에 있지 않고 문장 경계를 넘어 앞 문장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문이다. 그러나 (5b)는 앞 문장에 선행사가 있지만, 문장 경계를 뛰어 넘어 조용사와 결속 관계가 수립되지 못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HPSG는 독창적인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예문 (3)의 현상과 예문 (4-5)의 현상을 구별하고, 이들을 해결하기 위한 각기 다른 방안을 모색한다. 즉 예문 (3)의 현상은 문장 경계 안에서의 의미적 현상으로 보고, 예문 (4-5)의 현상은 문장 경계를 넘어서는 담화(discourse) 이론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

2.1. 비형상적 결속 이론

HPSG 이론은 성분 통어에 대한 개념을 수형 형상(tree configuration)이 아니라, 문법적 기능에 대한 상대적 사격성(relative obliqueness)¹⁾에 기초를 둔 사격 통어(obliqueness-command)라고 불리는 다른 관계로 대치한 것이다. 먼저 결속 이론에 필요한 장치부터 살펴 보기로 한다. 모든 명사구들이 CONTENT 값으로 내부 구조가 (6)과 같은 유형 *nominal-object*를 취한다.

1. 상대적 사격성이란 사격성 위계라는 전통적 개념에 따라서 정해진 것으로, 문장 성분들의 동사 의존성 정도의 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동사 의존성이 클수록 사격성이 크고, 동사 의존성이 작을수록 사격성이 작다. 수식어가 사격성이 가장 크고, 주어가 사격성이 작다. 이 위계는 HPSG의 하위범주화, 성분순서, 통제 및 결속 원리, 그리고 의미역 설정 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명사성 대상물(nominal object)에는 두가지의 중요한 특성이 있다. 첫째 지표(index)를 갖는다. 명사성 대상물의 지표(index)는 (6)에서 알 수 있듯이 또 내부 구조를 갖는다. 즉 일치 자질(agreement feature)인 PERSON, NUMBER 그리고 GENDER 자질을 가지고 있다. 명사구의 동일 지표(coindexing) 개념과 일치하는 HPSG 일치 이론의 개념은 지표의 토큰 동일성(token-identity) 또는 구조 공유(structure-sharing)이다. 지표의 의미적 중요성은 만약 명사구가 지시적(referential)이라면 그것과 동일 지표된 어떤 명사구는 똑같은 지시(reference)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치 자질들은 지표의 내부 구조에 속하기 때문에, 조용사와 그의 선행사인 동일 지표된 명사구는 필연적으로 인칭, 수, 성에 대한 동일한 명세를 갖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둘째로 명사성 대상물을 갖는 명사구들의 지시적 속성에 기초하여 유형으로 분류된다. 분류의 상위 단계에서 명사성 대상물은 *pronominal(pron)*과 *nonpronominal(npro)*으로 구분된다. 대명사류 대상물은 *anaphoric(ana)*과 *personal-pronominal(ppro)*로 분류된다. *anaphoric*은 *reflexive(refl)*와 *reciprocal(recp)*로 나뉜다.

어휘 핵어의 SUBCAT 값은 synsem 대상물의 리스트이며, 이는 결속 이론의 원리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계층적 구조(hierarchical structure)를 제공하여 준다. 예를 들면 (7a)의 동사 *chased*의 SUBCAT 리스트는 (7b)이다.

- (7) a. Fido_i chased himself_i.
- b. [SUBCAT <NP:npro, NP:ana>]

원리 A는 동일 SUBCAT 리스트 상에서 조용 명사구(NP:ana)와 사격성이 작은 구 사이의 동일지표를 요구하는 제약(constraint)으로 간단히 기술될 수 있다. 이는 (7a)의 CONTENT 구조에서 두 지표가 토큰 동일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장한다.

HPSG의 결속 이론은 국부적 사격 통어(local obliqueness-command)와 사격 결속(obliqueness-binding) 등의 개념을 이용하여 (8)처럼 기술할 수 있다.

- (8) HPSG 결속 이론:

원리 A: 국부적으로 사격 통어된 조동사는 국부적으로 사격 결속되어야 한다.

원리 B: 인칭 대명사는 국부적으로 사격 자유이어야 한다.

원리 C: 비대명사(non-pronoun)는 사격 자유이어야 한다.

원리 A와 B는 국부적 사격 통어와 국부적 사격 결속이라는 비형상적 관계에 의하여 기술되었으나, 원리 C만은 수행-형상적 개념(tree-configurational notion)에 호소하고 있다.

2.2. 표준적인 결속 현상

앞에서 제시한 예문 (3)과 같은 표준적인 결속 현상들을 HPSG 결속 이론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원리 A가 적용되는 예문을 살펴 보기로 한다.

- (9) a. John_i likes himself_i.
 a'. [SUBCAT <NP:npro_i, NP:ana_i>]
 b. *John_i knows Bill_j likes himself_i.
 b'.*[SUBCAT <NP:npro_i, NP:ana_i>]

원리 A에 의하면 예문 (9a)의 동일지표는 필연적이다. 왜냐하면 조동사 *himself*는 *John*에 의해서 국부적으로 사격 통어되며, 그리하여 국부적으로 사격 결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John*이 유일한 국부적 사격 통어자이며, 유일하게 가능성이 있는 국부적 사격 결속자이다. 그러나 (9b)의 동일지표는 잘못이다. 왜냐하면 조동사 *himself*가 *John*에 의하여 유일하게 사격 결속되어 있으나, 원리 A의 요구대로 국부적으로는 사격 결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은 원리 B가 적용되는 것을 살펴 보기로 한다. 만약 동사가 제 1 목적어 명사구와 동시에 사격성이 큰 지시적 보어(제 2 명사구 목적어나 비서술 전치사구)를 하위범주화하고, 사격성이 큰 지시적 보어가 인칭 대명사라면, 인칭 대명사는 주어나 제 1 목적어와 동일지표가 되어서는 안된다.

- (10) a. *Mary_i described Bill_j to her_i/him_j.
 a'.*[SUBCAT <NP_i, NP_j, PP[to]:ppro_{i,j}>]
 b. *He_i sold the slave_j him_i.
 b'.*[SUBCAT <NP_i, NP_j, NP:ppro_{i,j}>]

예문 (10a)의 인칭 대명사 *her/him*은 원리 B에 의하여 국부적으로 사격 자유이어야 하는데 사격 결속이 되어 비문이다. 예문 (10b)의 인칭 대명사 *him*도 사격 결속이 되어 비문이다.

다음은 결속 이론의 원리 C가 적용되는 예를 살펴 보기로 한다.

- (11) a.*He_i likes John_i.
 b.*He_i knows that Mary likes John_i.

예문 (11a)와 예문 (11b)가 비문인 이유는 비대명사 *John*이 사격 결속되어 원리 C를 위반하였기 때문이다.

2.3. 개입 제약과 관점(Point of View)

결속 이론에서 면제된 조용사의 분포에 있어서의 비통사적 요인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사격성이 작은 지시적 공동논항(coargument)을 취하는 조용사에 대한 분석 방법이 예문 (12)와 같이 면제된(exempt) 조용사의 분석에 똑같은 하나의 원리로 적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분석들은 이런 방법을 시도하였는데, 그 이유는 예문 (12)처럼 동일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 (12) a. John_i found [a picture of himself_i].
 b. The women_i selected [pictures of each other_i].
 c. The men_i admired [each other_i's trophies].
 d. The men_i introduced the women_j to [each other_{i,j}'s spouses].

Chomsky의 표준 결속 이론에서는 원리 A가 면제된 것과 비면제된 조용사 사이의 구분을 무시한 채로 형식화되었기 때문에 잘 설명이 된다. 그러나 HPSG가 제시한 원리 A는 위의 예문들에 제시된 동일지표를 보장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이 우리의 분석에는 장점이 된다. 위의 예문에서 동일지표와 관련한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이러한 동일지표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동일지표는 결속에 대한 절대적인 제약을 기술하는 문법 원리에 의하여 강요받아서 안된다.

- (13) a. Bill remembered that Tom_i saw [a picture of himself_i] in the post office.
 b.?Bill_i remembered that *the Times* had printed [a picture of himself_i] in the Sunday edition.
 c. Bill_i thought that *nothing* could make [a picture of himself_i in the Times] acceptable to Sandy.
 d. What Bill_i finally realized is that *The Times* was going to print [that picture of himself_i with Gorbachev] in the Sunday edition.

이점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예문 (13a)의 개입하는 명사구 *Tom*을 무생물 명사구로 바꾸는 것이 비극부 선행사를 갖고 있는 그림 명사 재귀사의 수용성을 높여준다. 또 예문 (13c)의 양화사 *nothing*이 개입하여 문장의 수용성을 높여준다. 다음은 (13d)처럼 그림 명사구의 한정사를 *that*으로 바꾸어, 구를 더 한정적(definite)으로 만들어 종종 수용성을 증진시킨다.

다음은 그림 명사 재귀사와 수용성과 관련이 된 관점(point of view)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대체로 현행 결속 이론에서 무시되어온 것은, 재귀 대명사 특히 (면제된) 그림 명사 재귀사는 종종 관점에 기초하여 선행사가 부여되며, 재귀사는 하나의 명사구를 그의 선행사로 취하는데, 이 명사의 지시대상자는 관점 또는 견해를 어떻게든지 주어진 문맥에서 표현하고 있는 개체이다. 예문 (14)의 담화(discourse)를 살펴 보기로 한다.

- (14) John_i was going to get even with Mary. That picture of himself_i in the paper would really annoy her, as would the other stunts he had planned.

예문 (14)의 자연스런 해석은 해설자(narrator)가 *John*의 관점 또는 견해를 갖는 것이다. 이 관점은 두 문장의 문맥에 걸쳐서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그림 명사 재귀사는 자연스럽게 *John*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재귀사가 원리 A에 면제된 경우에는, 문맥이 제시하는 관점을 가진 개체를 지칭하는 명사구를 선행사로 취하도록 제약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또 각 문장 또는 절은 기껏해야 하나의 관점을 나타낸다. 면제된 조용사가 그의 관점을 표현한 개체를 지칭하고, 하나의 절이 하나 이상의 조용사를 가지면, 그들은 지시적으로 동일하다.

영어의 *bother*와 같은 심리(psych) 동사에서는, 경험자 의미역 (예를 들면 *bother*의 제 1 목적어)을 가진 자의 관점이 반영된다고 가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아래의 대조를 관찰하여 보기로 한다.

- (15) a. The picture of himself_i in Newsweek bothered John_i.
 b.*The picture of himself_i in Newsweek bothered John_i's father.

원리 A와 조화시키기 위하여 통사적 분석을 시도하여 왔지만, 예문 (15b)는 *John*의 관점이 아니라, 경험자(*John*의 아버지)의 관점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문이다. 반면에 예문 (15a)는 *John*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어서 재귀 대명사의 사용이 원리 A를 준수하기 때문에 정문이다.

결론으로 이제까지 제시한 HPSG의 결속 이론은 성분 통어와 같은 형상적인 개념을 이용하지 않고, 어떤 종류의 구절 구조 규칙에도 호소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러한 구조로 결속 이론을 대치하는 것은 사격 통어와 극부 사격 통어의 개념이었다. 이런 개념과 다양한 절차와 담화 요인 즉 개입 제약과 관점을 포함한 HPSG 결속

이론은, Chomsky (1986)에서 발전된 GB 이론보다 또는 Jackendoff (1972)에 의하여 처음으로 제시된 의미역 관계의 위계에 기초를 둔 결속 이론보다 더 나은 설명을 제공한다.

3. 수식어 구문의 일치와 결속 현상

3.1. 대명사에 관한 연구

예문 (1)의 주절과 종속절 사이의 대명사 일치 현상을 다루기 위한 연구, 특히 대명사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이 많았다. 대명사에 대한 생성 문법적 연구는 Lees & Klima (1963)에서 시작되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의 주장은 심층 구조에 동일 지시를 하는 명사구들이 한 문장 내에 나타나고, 선행하는 명사구가 주절에 있으며 후행하는 요소가 종속절 내에 있으면, 후자의 요소가 대명사화(pronominalization)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가 축진제가 되어 여러 가지 이론들이 생겨났다. Ross (1967a)와 Langacker (1969) 두 사람은 대명사들은 심층 구조에서 대명사화되지 않은 명사구이나 “대명사화” 규칙에 의하여 변형적으로 대명사가 된다고 가정하였다. Jackendoff (1972)의 해석 규칙(Interpretive Rule)²⁾에 의한 설명은, 대명사는 기저 구조에서 대명사로 실현되고, 일단의 해석 규칙이 문장 내의 대명사와 그들의 선행사에 동일 지시적 해석(coreferential interpretation)을 부여한다고 가정하였다. Jackendoff는 명사와 대명사의 지시 관계를 결정하는 규칙으로 동일 지시 해석 규칙과 비동일 해석 규칙을 제시하여, 기저 구조의 명사구에 변형 규칙을 적용시켜 대명사를 도출하는 변형적 방법을 배격하였다. 즉 대명사를 기저 구조에서부터 생성하여 대명사의 지시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해석 규칙을 제안하였다.

지배-결속 이론이 결속 현상을 다루기 위하여 제시한 결속 이론은 (16)이다.

- (16) a. 조건 A: 대응사는 그의 지배 범주 속에서 결속되어야 한다.
 b. 조건 B: 대명사류는 그의 지배 범주 속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c. 조건 C: 지시적 표현은 자유로워야 한다.

2. Jackendoff (1972)는 아래와 같은 2가지의 해석 규칙을 제안하였다.

- (i) 규칙 1: 대명사가 명사구를 선행하고 동시에 통어하지 않는다면 선택적으로 명사구에게 대명사와 동일 지시적이라고 표시하라. (순환 규칙)
 (ii) 규칙 2: 문장 내에서 NP₁과 NP₂가 있으며, 동일 지시 연결이 되지 않았다면, 그 2 명사구는 비동일 지시적이라고 표시하라. (최종 순환 규칙)

이 정의에 의하여 예문 (1)을 분석하면, 모든 문장이 중의성이 있다. 즉 이 문장들은 주절과 종속절의 주어들이 동일 지시적이거나 비동일 지시적인 해석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즉 종속 부사절이 상위문 S의 좌측에 연결된 경우에는, 2개의 절의 주어 위치 사이에는 어떤 성분 통어 관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명사구가 다른 명사구를 결속할 수 없다. 결속 이론의 원리 C에 의하면 지시적 표현(John)은 모든 범위 내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그리고 John은 비록 다른 절의 주어와 동일 지시되었지만 자유롭다. 즉 성분 통어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서 동일지표가 자유롭고, 대명사와 이름은 결속 원리를 위반하지 않고도 동일 지시하거나 동일 지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대명사와 선행사 사이의 일치에 대한 연구가 많았으나 명쾌하게 현상을 설명한 이론은 없다. 이는 통사적인 측면에 집착한 나머지 형상적인 개념에 의존한 이론 전개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의미적인 접근도 있었으나 이 또한 의미적인 면에만 치중하여 올바른 분석이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단점을 지적한 HPSG의 일치 이론과 관련된 예문을 살펴 보기로 한다.

- (17) a. the man who/*which I saw
 b. the book which/*who I saw
 c. The volcano which/*who has been dormant for a century erupted.
 d. The volcano who just left the room was Bill's kid.
 e. The soldiers which were made of lead were thrown away.

예문 (17a,b,c)에서 알 수 있듯이, 관계 대명사 *who*는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에, *which*는 선행사가 사람이 아닌 경우에 쓰인다. 그런데 예문 (17d)의 *volcano*는 원래는 무생물이지만 여기서는 비유의 뜻으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는 *who*가 된다. 반면에 예문 (17e)에서 *soldiers*는 원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가 *who*이어야 하나, 조각품이기 때문에 무생물이 되어 관계 대명사가 *which*가 된다. 그러나 영어의 일치 현상을 전적으로 의미적인 현상으로 파악할 수도 없다.

- (18) a.*The ship lurched, and then she righted itself.
 b. The ship lurched, and then she righted herself.
 c. The ship lurched, and then it righted itself.

만약 수와 성의 일치 현상이 순수하게 의미적 현상이라면, 예문 (18a)가 정문이 되어야 한다. *ship*의 성이 여성도 되고 중성도 된다면, 주어의 형태로는 여성을, 재귀 대명사의 형태로 중성을 취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문 (18b,c)에서 알 수 있듯이, 일단 *ship*의 성이 정해지면 결속 이론도 이에 따른다. 따라서 바람직한 일치 이론은 의미론과 통사론을 넘나들면서 일치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론이어야 한다.

영어 일치 현상이 통사론과 의미론에 의하여 처리되지 못하여 화용론적인 정보가 필요한 예문을 HPSG는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즉 대화 도중에 한 문장 속에서 부여받은 명사구의 지표가 다른 문장에서는 다른 지표로 바뀌어 쓰일 수가 있다.

- (19) The Senate just voted *itself* another raise. Most of *them* were already overpaid to begin with.

위의 예문에서 앞 문장은 *The Senate*를 단수로 받아서 *itself*가 되었는데, 이때 *itself*는 조용사로서 그 문장 내에 있는 선행사 *The Senate*와 결속되므로 결속 이론의 원리 A를 충족시켜 문법적인 문장이다. 그런데 두번째 문장에서 *them*은 앞 문장과 달리 *The Senate*를 복수로 받는 경우이다. 이런 현상이 허용되는 것은 두번째 문장에서 *them*은 대명사로서 결속 이론의 원리 B를 충족시켜야 한다. 즉 인칭 대명사는 국부적으로 사격 자유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국부적으로 사격 결속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의 국부적인 범위는 두번째 문장을 의미하므로, 결국 결속 이론을 준수하여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이때 *them*은 문장 밖의 요소와 결속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곧 *The Senate*인 것이다.

HPSG가 지적한 이런 예문에 대하여 기존 이론이 명확한 설명을 하기가 매우 힘들 것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일치 현상은 통사, 의미, 화용적인 측면을 전부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에서 살펴 보게 될 정보 기반 문법 이론인 HPSG는 이러한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하고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3.2. 일치(Agreement) 현상에 대한 HPSG의 분석

영어의 3가지 일치 현상 즉 대명사-선행사, 주어-동사 그리고 한정사-명사 일치에 대한 HPSG의 설명 방법을 먼저 살펴 보기로 한다. 그리고 대명사와 선행사 일치의 접근법을 수식어 결속 현상에 적용시켜 설명을 시도하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일치란 '언어 표현의 체계적인 공변이(covariation)'라고 정의되며, 2가지의 접근 방법에 의하여 연구되어 왔다. 하나는 도출(파생)적(derivational) 접근법으로, 일치 통제자(agreement controller)라고 불리는 명사에서 일치 자질 다발을 해당되는 일치 목표(agreement target)라고 불리는 어떤 것에 복사하거나 이동시키는 방향성 절차가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제약 기반(constraint-based) 접근법으로, 일치 관계에 참여하는 2가지 요소는 하나의 언어 대상물에 대하여 부분 정보를 명시한다. 일치란 단순히 단 하나의 대상물에 대한 2가지 근원에서 나오는 정보가 일치한다는 사실에 기인한 형태상의 체계적인 변이이다. 이러한 제약 기반적 방법은 언어 사용의 전산적인 전망에서 뿐만 아니라, 경험적인 일반화를 통해서 도출적 접근법보다 더 나은 방법이다.

일치 현상을 가장 심도있게 다룬 이론은 GPSG이다. GPSG는 통제 일치 원리 (Control Agreement Principle)³⁾를 수립하여 설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일치 현상의 설명은 통사적인 접근법이였다.

이에 반하여 Pollard와 Sag (1992)는 일치 현상을 순수한 통사적 현상만으로 파악해서는 안된다고 풍부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지적하였다. 먼저 지시 전이(reference transfer)의 현상으로, 관련된 구의 지시 대상자는 그런 구를 비유적으로 언급할 때 받아들여지는 대상물과 화맥적으로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어떤 개체이다.

- (20) a. The hash browns at table nine are/*is getting cold.
- b. The hash browns at table nine *are/is getting angry.
- c. Queen—six bets.
- d. The dean's office approved the proposal.

예문 (20a)의 *hash browns*는 내재적 또는 형태론적으로 복수 명사이다. 그래서 복수 동사인 *are*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예문 (20b)의 *hash browns*는 식당의 9번 테이블에서 *hash browns*를 시킨 손님 한 사람을 가리키므로, 단수가 되어 단수 동사 *is*와 일치한다. 예문 (20c)의 주어의 지시 대상자는 한쌍의 카드가 아니라, 카드를 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수이다. 예문 (20d)의 *dean's office*의 지시 대상자는 아마도 그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일 것이다.

다음은 단수형 복수로서, 주어 명사구의 일치 자질과 단수 동사가 그 주어에게 요구하는 일치 자질 사이에 명백한 충돌이 있는 것이다.

- (21) a. Eggs is/*are my favorite breakfast.
- b. Doing phonology problems and drinking vodka makes me sick.

예문 (21a)의 *Eggs*는 통사적, 형태론적으로 복수 명사이지만, 여기서는 요리의 한 종류를 지칭하므로 단수로 취급된다. 예문 (21b)는 일련의 사건으로 취급하여 단수로 받는다.

집합 명사가 미국 영어에서는 단수 일치, 영국 영어에서는 복수 일치가 된다. 그러나 미국 영어에서 집합 명사가 복수 일치가 되기도 한다.

- (22) a. The faculty are all agreed on this point.
- b. If your family are all going to be here next week, then let's have a party.

3. GKPS (1985: 89) 참조. 대략적으로 말하면, (1) 국부 수형도에서 잠재 통제 목표 C'을 갖는 경우에는 C의 CONTROL 자질가는 C'과 같아야 하고, (2) C가 통제자가 없는 서술 범주(predicative category)인 경우에는 C의 CONTROL 자질가는 그것의 모범주인 C₀의 CONTROL 자질가와 동일하여야 한다.

예문 (21)과는 반대로 예문 (22a)의 *faculty*와 예문 (22b)의 *family*는 형태적으로 단수이나 의미적으로 집합을 나타내므로 복수로 취급된다.

이상에서 주어-동사 일치 현상은 항상 통사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주어 명사의 의미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점이 일치 현상에 대한 종래의 접근 방식에서 탈피하게 하는 중대한 관찰이다. 즉 일치 현상에 대한 의미론적 접근의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게 하는 전환점이 된다.

그러나 영어의 일치 현상을 전적으로 의미론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다.

- (23) a. The faculty is voting itself a raise.
 b. The faculty are voting themselves a raise.
 c. *The faculty is voting themselves a raise.
 d. *The faculty are voting itself a raise.

만약 수와 성의 일치 현상이 순수하게 의미적 현상이라면, 예문 (23c,d) 모두 정문이 되어야 한다. 집합 명사 *faculty*가 의미적으로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되므로, 동사를 선택할 때는 단수로 행동하고, 재귀 대명사를 선택할 때는 복수로 행동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문장의 성립 요건이 오직 의미적 기준뿐이라면, 예문 (23c,d)가 비문이 될 까닭이 없다. 그러나 예문 (23a,b)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faculty*가 단수 혹은 복수로 결정되면 이에 따라 결속 이론이 적용된다. 즉 영어의 일치 현상이 전적으로 의미적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일치 이론은 의미론과 통사론을 넘나들면서 일치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론이어야 한다.

HPSG에서 제시된 예문 (24)은 영어 일치 현상의 처리가 화용적 사항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 (24) That dog is so stupid, every time I see *it* I want to kick *it*.
He's a damned good hunter though.

위의 2개의 문장은 같은 담화에서 쓰인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a male dog*이 앞 문장에서는 중성 대명사인([GEND neut]) *it*로, 뒷 문장에서는 남성 대명사([GEND masc])인 *He*로 지칭되었다. 이는 영어의 화용 원리(pragmatic principle)에 *a male dog*을 남성 또는 중성으로 지칭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대략 말하자면 남성 대명사는 중성 대명사가 갖지 못하는 애정이나 친근감의 내포(connotation)를 지닌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명사 일치의 변환은 개에 대한 화자의 태도 또는 개에 대한 개체화 방식에 있어서의 변화를 알려주는 것이다.

아래의 예문 (25)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2번째 대명사가 첫번째에 결속된 조용사일 경우에는 대명사 일치의 전환은 불가능하다.

- (25) a. That dog is so ferocious, it even tried to bite itself.
- b. That dog is so ferocious, he even tried to bite himself.
- c.*That dog is so ferocious, it even tried to bite himself.
- d.*That dog is so ferocious, he even tried to bite itself.

HPSG의 통제 이론과 결속 이론이 결합하여 주어 대명사는 재귀사와 공지표된다. 예문 (25a,b)에서 대명사 *it*와 *he*는 앞에서 언급한 화용론적 제약에 의하여 가능하다. 일단 *that dog*을 *it*나 *he*로 받으면, 이 대명사들은 HPSG의 통제와 결속 이론에 의하여 각각 조용사 *itself*와 *himself*와 공지표된다. 반면에 예문 (25c,d)가 비문인 이유는 결속 이론을 위반하여 주어 대명사와 재귀사가 공지표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HPSG가 지향하는 일치 이론은 통사적, 의미적 그리고 화용적인 면을 모두 고려한 바로 이런 이론이다. Pollard와 Sag (1992)은 그들의 이론을 정보 기반 (information-based) 일치 이론이라고 부르며, 이제까지 사용된 자질과 원리들을 이용하여 일치 현상을 설명하였다. 일치 현상에 대한 HPSG의 설명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은 지시적 지표(referential indices)라고 불리는 의미적 정보이다. 이 지표는 하부 표기(subscript) ijk 등으로 표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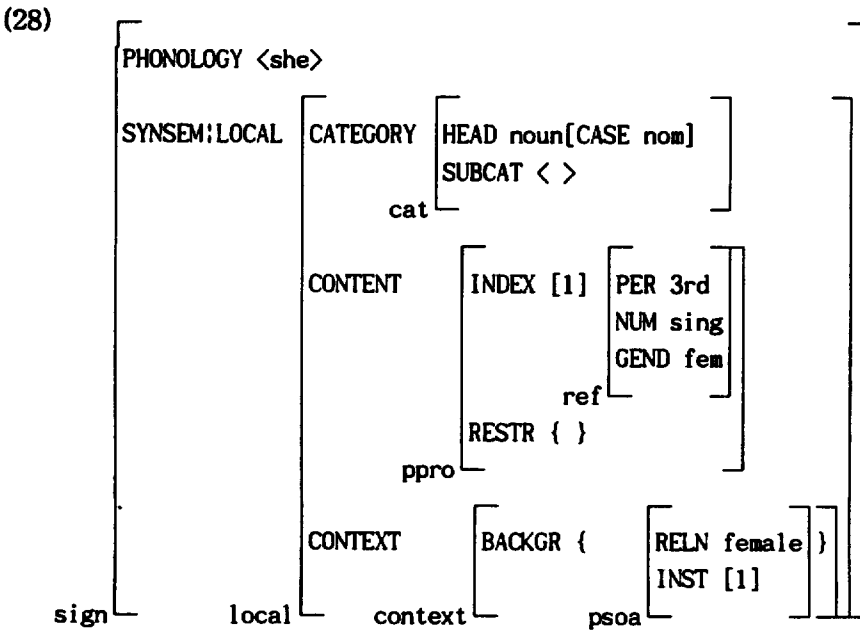
- (26) My neighbor_i thinks she_i is a genius.

예문 (26)에서 하부 표기된 지표 i 는 3인칭 단수 여성 지표이다. 다른 이론에서 지표 i 는 두 명사 표현이 동일 인물을 지시한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다. 그러나 HPSG에서 지표는 담화에서 언급되고 있는 개체를 추적하는 기능을 하는 추상적인 대상물로서 취급된다. 지시 대상자의 어떤 속성이 일치 자질로서 표현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많으나, 대체로 화자와 관련된 담화상의 역할로서 인칭(person), 수(number), 성(gender)이 있다. 그래서 지표는 다른 이론들과 달리 내부 구조를 가진다. 지표가 내부 구조를 갖는다는 말은 속성 INDEX가 자질 구조를 속성가로 취한다. 이 자질 구조의 3개의 속성이 일치 현상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 자질 구조는 속성 CONTENT에 포함되는 순전히 의미적 자질 구조이다. 즉 속성 PER, NUM, GEND은 통사 범주의 속성이 아니고, 지표의 속성이다. 그래서 대명사의 여러 형태도 지표 내의 다른 명세와 관련된다.

- (27) a. John_i thinks she_i is smart.
- b. My neighbor_i thinks he_i/she_i is smart.
- c. [pointing to a man] *She_i is tall.
- d. [pointing to a table] Elle/*Il est tres longue.
 'It is very long.'

e. [said to a stranger while waiting at a bus stop] Ich hoffe,
 daß er/*es/*sie bald kommt.
 'I hope that it soon comes.'

예문 (27a)에서 *John*이 여성 대명사 *she*와 지표가 같다. 이는 영어의 이름 규약과 어긋나는 것으로 설명이 곤란하다. 그러나 HPSG는 영어와 같은 자연 성(natural gender)의 언어에서는 고유 명사와 보통 명사는 그들의 지표에 어휘적으로 성을 명세하지 않고, 명세 [GEND fem]을 갖는 지표는 여성에 정박되도록 하는 화용론적 제약(pragmatic constraint)을 제시하여 해결한다. 즉 대명사 *she*의 완전한 구조는 아래와 같다.



위에서 CONTENT|INDEX의 경로와 CONTEXT|BACKGROUND|INST의 경로가 꼬리표 [1]로 동일하여 구조 공유된다. 즉 여성 대명사 *she*는 지시 대상자가 여성이라는 전제와 통합된다.

이러한 화용론적 제약은 예문 (27b)에서 대명사의 선택이 지시 대상자의 성(sex)에 의존하여 결정되는 이유를 밝혀준다. 예문 (27c)는 대명사의 직시적(deictic) 용법에 의하여 비문이 된다. 왜냐하면 직시적 지시는 발화의 화맥 속에서 두드러진 어떤 대상물에 직접 정박되는 지표에 의하여 분석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가정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화맥 속에서 두드러진 대상물은 남자(man)인데, 여성 대명사 *she*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비문이다. 이와 유사하게 예문 (27d)의 직시적 대명

사는 여성이다. 왜냐하면 불어에서 탁자는 여성 명사이기 때문이다. 또 예문 (27e)의 직시적 대명사는 남성이다. 왜냐하면 독일어에서 버스는 남성이기 때문이다. 불어와 독일어는 영어와 다른 화용론적 제약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앞의 예문 (23)에서 주어 명사의 일치 자질이 일단 결정되면 문장 전체에서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즉 HPSG 결속 이론의 원리 A에 의하면 국부적으로 사격 통어된 조동사는 국부적으로 사격 결속되어, 그의 선행사와 일치하여야 한다.

- (29) a. The hash browns at table nine said he/*they can't find the men's room.
 b. The ham sandwich at table six just made a fool of himself/*itself.
 c.*The ship lurched, and then she righted itself.
 d.*Each yacht that had lost its way found her destination.

예문 (29a)에서 *the hash browns at table nine*의 지시 대상자가 음식을 주문한 사람으로 결정되면, 일치 현상에 의하여 종속절에서 인칭 대명사 *he*와 일치한다. 이 명사의 수가 단수이기 때문이다. 이는 HPSG의 결속 이론을 만족시키고 있다. 마찬가지로 예문 (29b)에서 *the ham sandwich at table six*의 지시 대상자는 음식을 주문한 고객이므로, 결속 이론의 원리 A에 의하여 *himself*와 일치한다. 예문 (29c)에서 *the ship*이 일단 여성으로 결정되면 문장 전체에 걸쳐서 일관성을 유지하여 결속 이론도 충족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비문이 된다. 즉 주어 대명사가 *she*이면 결속 이론의 원리 A에 의하여 조동사는 *herself*가 되어야 한다. 만약 *the ship*이 대명사 *it*로 결정된다면, 조동사는 *itself*가 되어야 한다. 예문 (29d)의 비문은 양화사에 해당하는 지표와 양화사가 결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지표의 불일치에 의한다. 다시 말하면 여성 지표 *her*를 결속하기 위하여 양화사 명사구는 동일한 여성 지표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양화사 명사구의 지표는 보통 명사 *yacht*에서 유래한 것으로 중성이어야 한다. 이는 핵어 명사 *yacht*가 관계절의 주어와 동일지표 된다는 가정 하에서다. 관계절의 주어는 동사 *lost*의 첫번째 SUBCAT 요소이며, 중성의 결속된 대명사 *its*의 선행사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HPSG의 일치 이론은 도출 기반적 접근이 아니고 제약 기반적 접근법으로, 대부분의 변형적 분석에서 이용되는 방향성 용어 대신에 동일성 조건에 의하여 설명된다. HPSG의 일치 이론은 의미적 속성 INDEX를 이용하여 일치 현상을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인 면을 전부 고려하여 분석하는 정보 기반적인 이론이다.

3.3. 수식어 구문의 일치 현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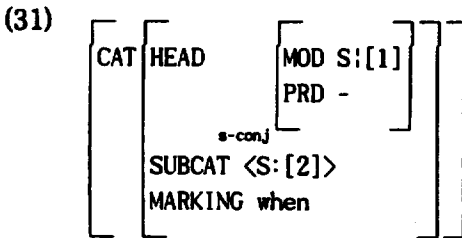
수식어 구문의 결속 현상 가운데 앞에서 제시한 주절과 종속절 사이의 대명사의 일치 현상을 설명하도록 한다. 먼저 대명사의 일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아래

(30)과 같은 영어 종속절 구문 분석부터 하기로 한다.

- (30) a. Kim left [when/after/before John left].
- b. Kim left [because/as/since John left].
- c. Kim would left [if John left].

위의 예문은 각각 시간, 이유, 조건 등을 나타내는 종속절을 포함한 영어 문장이다. HPSG에서 보어는 어휘 범주와 결합하여 구범주로 확장되는 반면에, 수식어는 구범주와 결합하여 구범주로 확장된다. 이는 수식어가 어떤 요소에 의해서 하위범주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⁴⁾ 그리고 수식어의 다른 특징은 수식어들이 문장의 의미역에 일률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이다.⁵⁾ 즉 예문 (50)에서 종속절이 문두에 위치하거나 문미에 위치하거나 의미적 영향은 동일하고, 또 주절의 술어 동사가 바뀌더라도 수식어가 전체 문장에 미치는 의미적 영향은 동일하다.

이러한 특성을 갖는 수식어 종속절의 접속사를 HPSG에 도입하는 방법은 박병수의 (1990)가 제안한 방법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종속 접속사 *when*의 자질 구조가 (31)과 같이 사전에 등록된 것으로 가정한다.



종속절의 *when, although, because* 등과 같은 접속사들의 범주 정보 가운데, 핵자질 HEAD는 속성 MOD와 PRD를 취하는 새로운 품사 유형 *conjunction*을 값으로

4. 영어 수식어 구문을 인가하는 핵어-수식어 도식은 대략 아래와 같다.

XP -> Y*[MOD [3]], [3]XP
 ADJUNCT HEAD

5. 수식어는 넓은 영역의 핵어들과 공기하며, 대체로 일정한 의미적 기여를 하지만, 보어는 핵어와의 공기에 본포상 제약이 있으며, 의미적 기여는 핵어에 의존한다. 간단한 예를 살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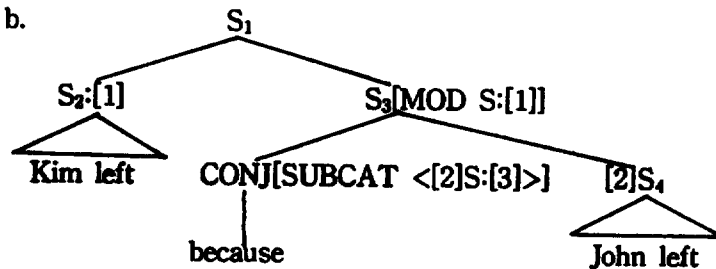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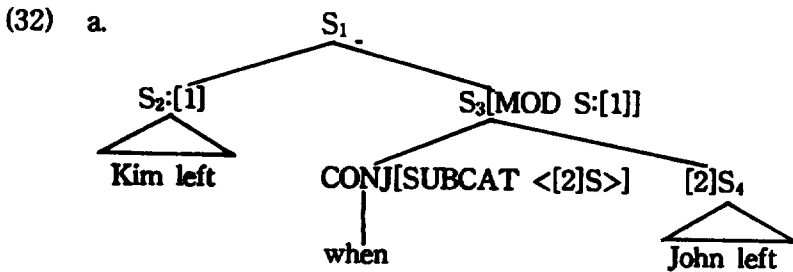
- a. Kim camps/jogs/meditates [on the hill].
- b. Kim depends/relies [on Sandy].
- c. The authorities blamed/pinned the arson [on Sandy].

예문 (a)의 PP[on]은 장소의 수식어이어서 핵어가 달라져도 장소적 의미 내용은 유지된다. 반면에 예문 (b,c)의 PP[on]은 핵어 동사에 의하여 하위범주화된 요소이며, 핵어에 따라서 그 의미 역할이 달라진다.

취한다. 유형 *conjunction*은 하위 유형으로 2가지가 있다. 첫째는 동위 접속사 (coordinate conjunction(c-conj))로서 여기에는 반복 동위 접속사(Iterating coordination)와 이원 동위 접속사(Binary coordination)인 *and, or, but, both, either, neither, nor* 등이 있으며, 둘째로 종속 접속사(subordinate conjunction(s-conj))로서 *when, although, because, if* 등이 있다. 종속 접속사 가운데 하나가 MARKING 값으로 선택되면, 그 종속 접속사는 제 2 공관계화사와 비슷하게 하나의 문장을 하위범주화한다. 그리고 핵자질인 MOD의 값은 V[SUBCAT < >] 이다. 즉 종속절이 동사구나 문장을 수식한다. 이러한 종속절 구문을 인가하기 위하여 새로운 도식이 필요하다. 이를 접속사-핵어(Conjunction-Head) 도식이라고 부르며, 이 도식은 뒤에 성분 구조(constituent-structure)의 하위 유형인 동위 구조(coordinate-structure)의 분석에도 이용될 것이다. 이 동위 구조는 하위 유형으로 반복 동위 도식과 이원 동위 도식으로 나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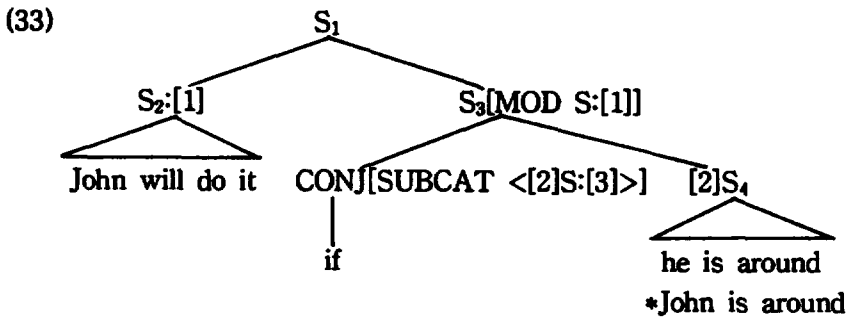
이상의 장치에 의하여 핵자질 MOD 값은 주절의 의미역 값과 통합되어(구조 공유 ([1])되어) 문장의 의미에 기여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접속사가 종속절을 하위범주화하여 SUBCAT의 값으로 취한다는 것이다. 이는 접속사가 제 2 공관계화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며, 동시에 표지어처럼 다양한 표지를 갖는다. 이러한 분석은 종속절에 대한 종전의 여러 분석과 다르다. 종속 접속사가 종속절을 하위범주화하고 주절을 수식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분석은 어휘의 속성을 반영하여 문법의 짐을 줄이려는 HPSG의 정신과도 일치한다.

이러한 이론적 장치에 의해 예문 (30a,b)는 대략 (32)의 구조를 갖는다.



수형도 (32a)에서 종속 접속사 *when*이 접속사-핵어 도식에 의하여, 문장 S를 하위범주화 요소로 요구하는데 이는 S₄에 의해서 충족된다. 그리고 *when*의 어휘 목록에 있는 핵자질 MOD는 핵자질 원리에 의해서 S₃까지 전사된다. 여기서 MOD의 값인 S:[1]은 주절인 S₂의 의미역과 통합하게 되는데 이 역시 *when*의 어휘 목록에 부여된 제약에 기인한 것이다. 상위 부분은 핵어인 주절과 수식어인 종속절로 된 수식어-핵어 도식에 의하여 인가된다. 전체 문장 S₁의 의미는 의미 원리에 의하여 얻을 수 있다. 이때 의미적 핵어는 수식어인 종속절이 된다. 수형도 (32b)의 경우도 이와 동일하게 분석된다. 다른 점은 종속 접속사의 MARKING 값이 *because*이다.

이러한 종속절 구문의 분석에 의하여 앞에서 제시한 예문 (1)의 종속절 구문과 주절 속의 대명사 일치 현상을 분석하기로 한다. 예문 (1)에서 종속절은 문장 수식어로 예문 (1a,b)처럼 전치되기도 한다. 수식어가 전치되지 않은 예문 (1c,d)를 수형도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수형도 (33)에서 종속 접속사 *if*가 접속사-핵어 도식에 의하여 문장 S를 하위범주화 요소로 요구하는데 이것은 S₄에 의하여 충족된다. 그리고 *if*의 어휘 목록에 MOD 자질은 핵자질로서 핵자질 원리에 의하여 S₃까지 상속된다. 여기서 MOD의 값으로 주절인 S₂의 값과 통합된다. 이것 역시 종속 접속사 *if*의 어휘 목록에 부여된 제약에 기인한 것이다. 상위 부분은 수식어-핵어 도식에 의하여 인가된 것으로 핵어인 주절과 수식어인 종속절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문장 S₁의 의미 내용은 의미 원리에 의하여 얻을 수 있다. 즉 수식어와 핵어의 의미 내용의 통합인데 이때 의미적 핵어는 수식어인 종속절이다.

문제는 HPSG의 결속 이론의 적용이다. 주절이나 종속절의 고유 명사 *John*은 결속 이론의 원리 C의 적용을 받아서 사격 자유이어야 한다. 그래서 *John*이 사격 결속이 되지 않으면 좋은 문장이 된다. 또 주절이나 종속절의 인칭 대명사 *he*는 HPSG 결속 이론의 원리 B의 적용을 받아서 국부적으로 사격 자유이어야 한다. 즉 주절과 종속절 내에서 각각 사격 결속되지 않으면 정문이다. 이는 HPSG의 결속 이론이 의미적이며 비형상적인 사격성 위계에 의하여 정립되었으며, 이렇게 통사적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들은 담화적인 제약에 의하여 설명되었다. 이러한 접근법이 올바

른 것이라면, 위의 예문들도 통사적인 접근이 아니라 담화 또는 화용론적인 접근법이 바람직한 것이 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주절과 종속절 사이의 대명사 일치 현상은 통사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용적, 담화적 접근법을 이용하기로 한다. 이러한 접근법을 사용한 사람 가운데 한사람인 Lasnik (1976)은 대명사의 지시에 대한 이해는 화자와 청자 사이의 협동의 원리(principle of cooperation)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고 주장하였다. 즉 화자는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청자가 알 수 있는 합리적인 모든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대명사의 지시에 대한 이해도 의사 소통(communication)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Grice (1975)는 모든 담화에는 다음과 같은 협동의 원리(cooperative principle)가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다.

(34) 협동의 원리(Cooperative Principle):

대화가 벌어지고 있는 단계에서, 대화의 목적과 방향에 의하여 요구되는대로 협동하도록 힘쓰라.

즉 담화란 목적이 있는 대화로서, 대화의 교환은 화자가 그의 목적을 합리적으로 성취하려고 이야기하고, 청자는 그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인지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협동적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주절과 종속절 사이의 어떤 일치 현상은 사격성·위계에 기반을 둔 결속 이론에 의한다기 보다는, 위에서 살펴 본 Lasnik과 Grice의 제안과 비슷한 “의사 소통 협동의 원리” 같은 것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다. 의사 소통 협동의 원리란 인간의 의사 소통을 원만히 하기 위해선 화자와 청자 상호간에 협동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상황 의미를 받아들이고 있는 현 HPSG 이론에서 볼 때,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적 표현 또는 기호는 우리의 생사와도 직결된, 생태학적인 측면까지도 고려한 정보를 담고 있다. 예를 들면 “불이야!”라는 언어 발화는 이 언어 표현을 접한 화자 또는 청자 모두에게 여러 가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위험하니 피하라’, ‘소화기를 찾아 보아라’, ‘신고를 하라’ 등의 정보가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발화를 접할 때 청자는 여러 가지의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화자와 청자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질 때에 중요한 것은 화자의 말하는 목적을 청자가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화자 역시 이러한 목적을 제대로 전달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또 전달하는 정보가 완전하지 않아도 부분 정보로부터 전체적인 내용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대화의 진행이 상호간의 관심사에 맞추어 가기 때문이다. 즉 의사 소통이 이루어 지도록, 또 상호 관심사에 서로를 맞추며 대화를 협동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예문 (1)의 정문과 비문의 문제는 통사적인 방법에 의하기 보다는 화용

론적 또는 담화 기반적인 “의사 소통 협동의 원리”에 따른다고 분석할 수 있다. 즉 선행사와 대명사 사이의 일치 또는 불일치는 화자와 청자 사이의 협동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3.4. 수식어 구문의 결속 현상 분석

다음은 수식어 구문 가운데 분사 구문 속의 결속 현상에 대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아래의 예문 (35)는 Mohanan (1983)이 지적한 것이다.

- (35) a. While scratching himself/*herself, John kicked Mary brutally.
- b. While scratching herself/*himself, Mary was brutally kicked by John.
- c. While recovering from his/*her illness, John constantly irritated Mary.
- d. While recovering from her/*his illness, Mary was constantly irritated by John.
- e. While working on preposition stranding, John is likely to go into long periods of depression.
- f.*While working on preposition stranding, it is likely that John will go into long periods of depression.

Mohanan의 지적에 의하면, 예문 (35a,b)와 예문 (35c,d)에서 주절의 능동태와 수동태의 대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분사 구문의 통제 현상이 의미역이나 화용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문법적 기능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예문 (35)의 분석의 전제 조건은 분사 구문의 통제는 상위문의 주어에 의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예문 (35a)에서 분사 구문의 통제자는 상위문의 주어인 *John*이며, 결속 이론의 원리 A에 의하여 *himself* 와 동일지표된다. 한편 예문 (35b)에서 분사 구문의 통제자는 상위문의 주어인 *Mary*이지, 의미역이 행위자인 *John*이 아니다. 그리하여 결속 이론의 원리 A에 의하여 *herself* 와 동일 지표된다. 반면에 예문 (35c,d)에서는 결속 이론의 원리 B에 의하여 각각 다른 인칭 대명사와 동일지표된다. 예문 (35e,f)에서 분사 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는 *work*하는 행위자가 되기 때문에 생명체인 *John*은 가 능하나, 허사인 *it*는 통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예문과 지적은 앞 절에서 살펴 본 주절과 종속절 사이의 대명사와 선행사 일치에 대한 화용론적 분석과는 다른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수식어인 분사 구문이 상위문(핵어)의 주어에 의하여 통제된다는 증거는 아래의 예문 (36)에서 알 수 있다.

- (36) a. Lying idly in the sun, John watched Mary.
 (John lies in the sun)

- b. Lying idly in the sun, Mary was watched by John.
(Mary lies in the sun)
- c. Hidden behind the bushes, John shot Mary.
(John is hiding)
- d. Hidden behind the bushes, Mary was shot by John.
(Mary is hiding)

예문 (36)은 HPSG에서 다룬 서술 수식어절(predicative adjunct clause)과 유사하게 분석할 수 있겠다. 서술 수식어절은 항상 문장 수식어로서, 의미상 주어의 통제자는 상위문의 주어이다. 즉 예문 (36a)에서 분사 구문의 의미상 주어는 상위문의 주어인 *John*이고, 예문 (36b)에서는 *Mary*이다. 그리고 수동형의 분사 구문인 예문 (36c,d)의 분석도 서술 수식어절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겠다. 중요한 것은 이들 역시 통제자가 상위문의 주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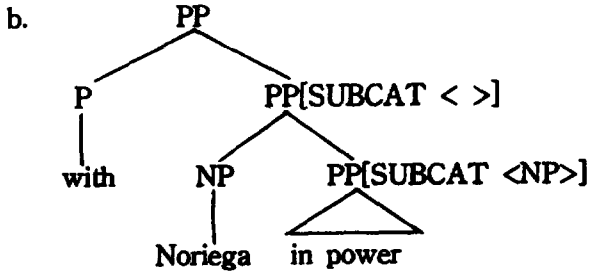
그러면 영어의 서술 수식어절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하자. 서술 수식어절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즉 예문 (37a)와 같은 *with*가 있는 서술 수식어절과 예문 (37b,c)와 같은 *with*가 없는 서술 수식어절이다.

- (37) a. With Kim gone, the project fell apart.
- b. His hands trembling violently, Sandy loomed in the doorway.
- c. Trembling violently, Sandy loomed in the doorway.

서술 수식어절의 분석 방법으로 소절(small clause) 분석 방법, 소절 분석 방법의 대안으로 Stowell (1981, 1983)이 제시한 Stowell 구조(Stowell structure)에 의한 분석 방법, 그리고 Postal (1974)이 제안한 SOR(Subject-to-Object Raising) 구조에 의한 분석 방법이 있다. 소절 분석 방법에 의한 예문 (37a)의 분석은 *with*를 수식어의 핵어로 취급하여, *with*가 SUBCAT 자질에 의하여 소절 *Kim gone*을 선택하고, MOD 자질에 의하여 시제절(finite clause)을 선택한다. 반면에 주어-목적어 상승(SOR) 구조에 의한 예문 (37a)의 분석은 수식어절 PP의 핵어인 전치사 P가 2개의 보어 즉 제 1 목적어 *Kim*과 서술 보어 VP를 선택한다. 그러나 명사구 *Kim*은 수동화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제 1 목적어라고 볼 수 없다. 그대신에 명사구 *Kim*은 서술 보어의 주어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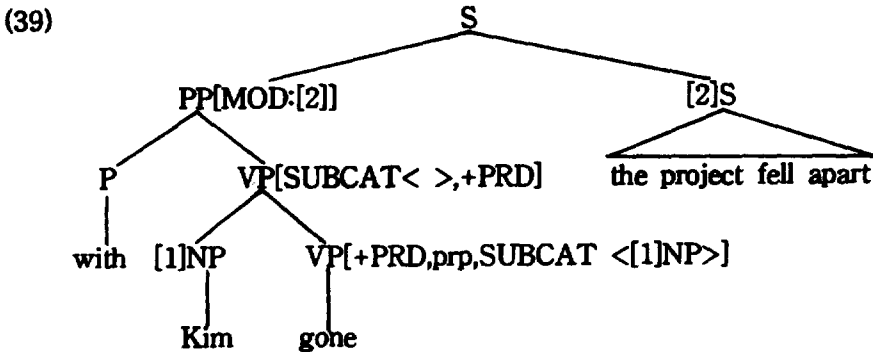
Pollard와 Sag (1987)은 독립 구문(absolute construction) 분석에 Stowell 구조에 의한 방법을 이용하였다.

- (38) a. [With Noriega in power], we'll have to cancel our va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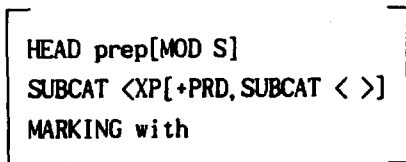
예문 (38a)의 수식어는 수형도 (38b)을 갖는데, 이때 전치사구의 핵어인 전치사 *with*는 보어로서 PP를 취하며, 이 PP는 PP *in power*의 주어로서 NP *Noriega*를 취한다.

우리는 예문 (37a)의 서술 수식어절을 Stowell 구조에 의한 분석 방법으로 처리한다.



수형도 (39)의 구조는 수식어-핵어 도식에 의하여 서술 수식어절 PP와 핵어 S로 결합되어 있다. 우리는 서술 수식어절 PP의 핵어 *with*를 서술 전치사(predicative preposition)라고 부르며, CAT 값이 (40)과 같다고 가정한다.

(40) 서술 전치사 *with*의 CAT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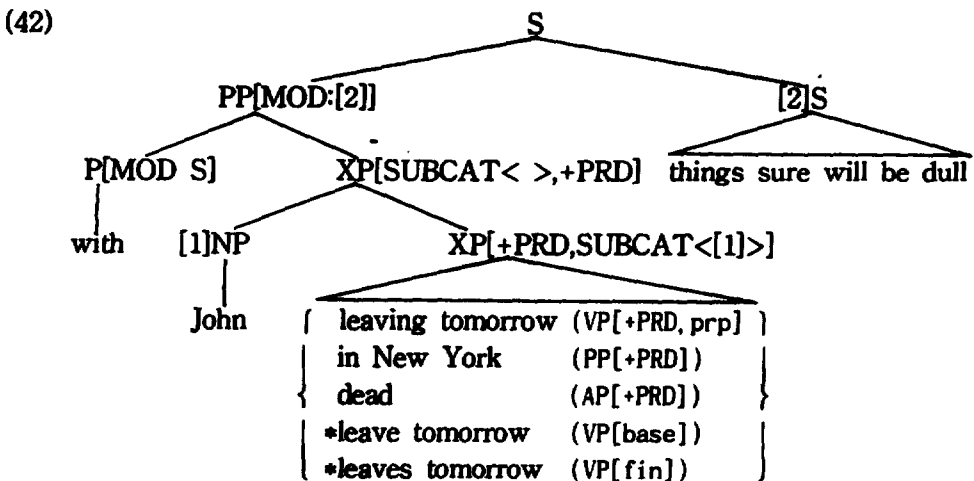
(40)의 서술 전치사는 MOD 자질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값은 시제절 S이다. 또 서술 전치사 *with*는 XP[+PRD, SUBCAT < >]를 하위범주화한다. 전치사가 하위범주화

하는 범주의 속성 PRD는 핵자질이므로 핵자질 원리에 의하여 핵어 딸에 상속된다. 한편 핵어 딸의 [+PRD] 명세는 하나의 NP를 요구한다는 의미를 내포하여 [SUBCAT <NP>]로 표시된다. 이 NP가 핵어 딸의 주어가 된다. 위의 예문에서는 NP *Kim*이 VP의 주어가 되며, 하위범주화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 상위 교점의 VP는 포화 상태가 된다.

이러한 분석 방법이 예문 (41)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 보기로 한다.

- (41) With { a. John leaving tomorrow }, things sure will be dull.
 { b. John in New York
 { c. John dead
 { d.*John leave tomorrow
 { e.*John leaves tomorrow }

예문 (41d,e)에서 원형 동사나 한정 동사를 핵어로 취하는 수식어절은 PRD 자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문이다. 그러나 예문 (41a,b,c)은 전치사 *with*가 PRD 자질이 있는 현재 분사형의 동사, 전치사, 형용사를 핵어로 취하는 절로서 문장 수식어 (sentential adjunct)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예문 (41)의 구조는 (42)처럼 분석할 수 있다.



한편 예문 (37b,c)처럼 *with*가 없는 서술 수식어절(*with*-less predicative adjunct clause)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예문 (37b)처럼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구를 취하는 서술 수식어절과 예문 (37c)처럼 그런 명사구가 없는 서술 수식어절이다.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구가 없는 수식어는 하위범주화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포화 상태가 아니다.

*with*가 없는 서술 수식어절이 *with*가 있는 서술 수식어절의 분석 방법과 유사하게 처리될 수 있는지 살펴 보기로 한다. Stowell 구조에 의한 분석 방법에 의하면, 서술 수식어절을 인가하는 핵어인 서술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설명이 불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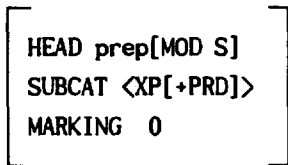
Emonds (1987)는 예문 (43)를 통해서, 부사 명사구에는 숨겨진 구조가 있다고 가정하며 "보이지 않는 범주(*invisible category*) 원리"를 주장하였다.

- (43) a. I saw John [that day].
- b. Max pronounced my name [every way possible].
- c. John was headed [that way].
- d. John arrived [the previous April].
- e. You have lived [few places that I cared f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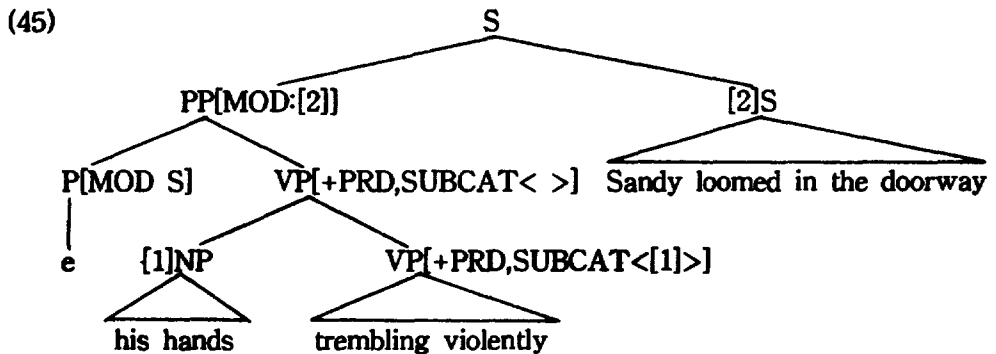
예문 (43)에서 [] 앞에는 *day*, *way*, *time*, *place*와 관련된 전치사가 생략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범주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였다.

우리는 *with*가 없는 서술 수식어절 분석을 위하여, Emonds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 서술 전치사(*null predicative preposition*)를 가정하며, 그의 CAT 값은 (44)와 같다고 본다.

(44) 공서술 전치사의 CAT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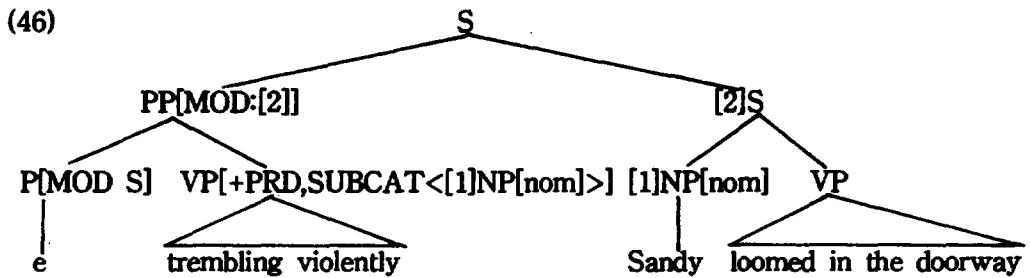


이 분석에 따라 예문 (37b)를 수형도로 나타내면 (45)와 같다.



*with*가 없는 서술 수식어절의 핵어는 공서술 전치사이다. 이 공서술 전치사는 MOD 자질을 가지며, 이 자질은 핵자질 원리에 의하여 상위 고점인 PP까지 상속되며, 이 MOD 자질에 의하여 시계절 S를 수식한다. 한편 공서술 전치사는 XP[+PRD]를 하위범주화한다. 하위범주화된 요소의 핵자질 PRD는 HFP에 의하여 핵어 딸에 상속되어 VP[+PRD]이 된다. 동사의 형태가 현재 분사형으로 이 자질과 일치한다. 또 VP[+PRD, SUBCAT <NP>]는 하나의 NP를 하위범주화하는데, NP *his hands*가 이 요구 조건을 만족시킨다. 즉 NP *his hands*가 VP *trembling violently*의 주어 역할을 한다.

반면에 예문 (37c)의 서술 수식어절은 공서술 전치사를 받아들여 (46)의 구조를 갖는다.



공서술 전치사는 VP[+PRD]를 하위범주화한다. 또 이 범주는 하나의 NP를 하위범주화하는데, 이를 만족시킬 주어 NP가 수식어절에는 없다. 이러한 정보를 간직한 채, 수식어-핵어 도식에 의하여 전체 문장이 인가될 때, VP[+PRD]의 하위범주화된 요소인 주어([SUBCAT <NP[nom]>])는 수식받는 문장의 주어인 NP *Sandy*와 구조 공유되어 원하는 의미 해석을 얻게 된다. 불포화 상태 수식어의 주어는 수식받는 문장의 사격성이 가장 작은 주어와 일치한 것이다. 이는 수식어의 의미상 주어는 명확히 주어 NP가 나타나지 않으면, 수식받는 핵어의 사격성이 가장 작은 주어와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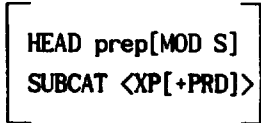
우리의 문제는 예문 (35)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이다. 이 논문에서는 예문 (35)와 예문 (1)을 다르게 분석하겠다. 그 이유는 예문 (1)은 종속 접속사가 분명히 나타난 문장들이고, 분사 구문에는 그러한 종속 접속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분사 구문 (35)를 예문 (36)과 유사하게 분석한다. 즉 (35)의 분사 구문의 *while*은 종속 접속사가 아니라 전치사이라고 가정한다. 이는 접속사들을 전치사로 분석하는 Emonds (1976)의 제안⁶⁾을 받아들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전치사를 '분사 구문 서

6. Emonds (1976)의 제안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즉 *while* 다음에 명사가 올 수 없다. 즉 완전한 문장이 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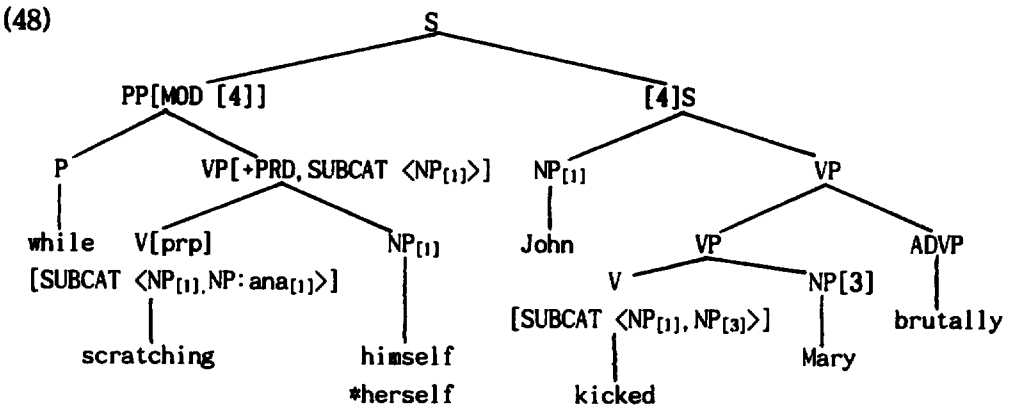
- (i) a.*He collapsed while the party.
- b. He collapsed while the party was in full swing.

술 전치사'라고 명명하고, 이 전치사는 핵자질인 MOD를 가지며 값으로 S를 취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즉 문장 수식어라는 것이다. 또 이 전치사는 XP[+PRD] 범주를 하위범주화한다고 가정한다. 우리는 이 전치사의 구조가 (47)과 같다고 가정한다. 이 전치사는 서술 수식어절에서 이용된 전치사와 유사하다.

(47) 분사 구문 서술 전치사의 CAT값:



분사 구문 서술 전치사를 이용하여 예문 (35a)를 수형도 (48)로 나타낸다.



위의 수형도에서 분사 구문 수식어절의 전치사 *while*은 하위범주화에 의하여 XP[+PRD]를 요구하여, 이 범주는 VP[+PRD]가 된다. 한편 수식어절의 핵어 동사 *scratching*은 [SUBCAT <NP_[1], NP: ana_[1]>] 명세를 갖는다. 이 핵어 동사는 하위범주화 원리 또는 항가 원리에 의하여 조용사 목적어를 취하여 상위 교점의 동사구는 [SUBCAT <NP_[1]>] 명세를 갖는다. 아직도 하나의 명사구 즉 문장의 주어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충족시키는 명사구는 전체 문장에서 사격성이 가장 작은 상위문의 문법적 주어 NP_[1]이다. 그리하여 분사 구문의 의미상의 주어 통제자는 상위문의 주어인 *John*이다. 또 HPSG의 결속 이론의 원리 A에 의하여 조용사 *himself*의 사격

또 *before*나 *since*처럼 보어없이 쓰일 수 없다.

- (ii) a. *He collapsed while.
- b. I'd never me her before.
- c. I haven't seen him since.

통제자는 문장 내에서 사격성이 가장 작은 주어인데, 이는 수식어절의 VP 교점의 하위범주화를 충족시킨 명사구 *John*이다. 그래서 조용사의 지표와 상위문의 주어의 지표가 동일지표되어 일치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himself*는 결속 이론의 원리 A를 준수하나 *herself*는 결속 이론의 원리 A를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비문이 된다.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분사 구문의 결속 현상은 HPSG의 사격성 위계에 기반을 둔 결속 이론을 준수한다. 그러나 의미역 기반의 결속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예문 (35b)에서 수식어절의 SUBCAT 리스트($[SUBCAT \langle NP_{[1]}, NP:ana_{[1]} \rangle]$)는 동일하나 수식받는 핵어 딸의 SUBCAT 리스트는 예문 (35a)와는 다르다. 즉 $[SUBCAT \langle NP_{[3]}, PP[by]_{[1]} \rangle]$ 이다. 만약에 의미역 기반에 의하여 결속 이론이 적용된다면, 능동태의 주어는 피동 어휘 규칙에 의하여 PP[by]구 속의 명사구인 *John*과 일치하므로, 조용사의 결속 통제자는 PP[by]구 속의 명사구인 *John*이 되어 *himself*와 일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herself*와 일치하고 있다. 이는 의미 기반의 결속 이론에 의한 분사 구문의 결속 현상의 분석은 잘못이며, HPSG의 사격성 위계에 의한 결속 이론이 맞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또 분사 구문은 문장 수식어이며, 의미상 주어 통제자는 상위문 또는 수식받는 문장의 주어라는 Mohanan의 지적과도 일치한다.

분사 구문의 서술 전치사는 서술 수식어절의 전치사 *with*처럼 [MOD S]를 취한다. 그러나 분사 구문 수식어절은 *with*가 있거나 *with*가 없는 서술 수식어절과는 달리 항상 상위문의 주어에 의하여 통제를 받기 때문에, 분사 구문 서술 전치사 뒤에는 주어 명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 (49) a. Being a telepath, Mary always cheated at cards.
- b. John being a telepath, Mary always cheated at cards.
- c. Safely hidden behind the barn, Mary watched the terrorists.
- d. Her jewels safely hidden behind the barn, Mary watched the terrorists.

- (50) a. While singing bawdy songs, Mary closes her eyes.
- b.*While John singing bawdy songs, Mary closes her eyes.
- c. When pinching elephants, John looks a great hero.
- d.*When Mary pinching elephants, John looks a great hero.
- e. When provoked by passersby, Mary insults them.
- f.*When John provoked by passersby, Mary insults them.

예문 (49a,b,c,d)를 *with*가 없는 서술 수식어절로 취급하면, 예문 (49b,d)의 명사 *John*과 *her jewels*가 수식어절에 나타나도 정문이 되고, 이 명사들이 수식어절의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 반면에 예문 (50a,c,e)에서의 분사 구문의 *while*과 *when*은 분사 구문 서술 전치사로서 하위범주화 요소로서 XP[+PRD]를 요구한다. 그러나 예문

(50b,d,f)에서 *while*과 *when*이 하나의 명사구와 XP[+PRD]를 취하며, 이 명사구가 XP[+PRD]의 의미상의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XP[+PRD]의 주어와 분사 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는 상위문의 주어라는 것과 상충하여 비문이 된다. 즉 분사 구문 서술 전치사와 서술 수식어절의 전치사의 차이점은 분사 구문 서술 전치사는 항상 불포화된 XP[+PRD]를 하위범주화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with*가 있거나 없는 서술 수식어절과 구별이 되고, 종속 접속사가 있는 종속절과 주절로 이루어진 문장과도 구분되는 새로운 분사 구문 서술 수식어절을 살펴 보았다. 특히 분사 구문 서술 수식어절은 전치사와 XP[+PRD]로 이루어진 구문으로서, 의미상의 주어 통제자는 상위문의 문법적인 주어로서 HPSG의 결속 이론의 적용을 받아서 수식어 결속 현상을 해결할 수 있었다.

4. 결론

HPSG 결속 이론은 형상적인 성분 통어 개념에 토대를 둔 다른 결속 이론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문법 기능에 관한 상대적 사격성에 기초한 사격성 통어에 의하여 정립된 이론이다. 다른 이론과의 중요한 차이점은 결속 현상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문장 경계 안에서의 현상은 의미 현상으로, 문장 경계를 넘어서는 현상은 담화 이론에 의하여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즉 결속 현상에서 동일지표가 절대적이 아닌, 다시 말하면 결속 이론의 원리 A에서 면제된 현상들은 개입 제약으로, 그림 명사 재귀사는 관점에 기초하여 선행사가 부여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한 HPSG의 이론적 장치는 지표로서 그의 내부 구조에는 일치 자질인 PER, NUM, GEN가 있어서, 조용사와 선행사 사이의 동일지표에 의하여 구조 공유를 시킴으로서 설명하였다.

수식어 결속 현상은 주절과 종속절 사이의 대명사 일치 현상과 분사 구문의 결속 현상을 다루었다. 종속절을 도입하기 위하여 박병수 외(1990)의 어휘 목록을 약간 수정하여, 새로운 품사 접속사를 가정하여 이 접속사가 문장을 수식하고([MOD S]), 또 다른 문장을 하위범주화([SUBCAT <S>]) 하도록 하였다. 이 접속사는 하위 유형으로 종속 접속사(s-conj)와 등위 접속사(c-conj)를 가지며, 등위 접속사는 등위 구조에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접속사-핵어 도식을 가정하여 종속절을 인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와 결속 이론에도 불구하고 주절과 종속절 사이의 대명사 일치 현상은 설명키 어렵다. 우리의 입장은 이러한 일치 현상은 통사적인 이론에 의하기 보다는 화용적인 접근법에 의하여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Grice의 협동의 원리를 받아들여 '의사 소통 협동의 원리'를 가정하였다. 이 원리에 의하면 인간의 의사소통을 원만히 하기 위해선 화자와 청자가 상호 협동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대화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적용하면서 대명사의 지시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이다. 대명사의 선행사 선택이 일률적인 제약에 의한다기 보다는 담화에 의존하여 협동적으로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반면에 분사 구문의 결속 현상은 이와는 다르다. 분사 구문 분석을 위하여 서술 수식어절의 분석 방법과 유사한 분사 구문 서술 전치사를 가정하였다. 이 전치사는 문장을 수식하고([MOD S]), PRD 자질이 있는 XP 범주를 하위범주화([SUBCAT <XP[+PRD]>]) 한다. 이 하위범주화된 범주는 아직도 하나의 명사구를 필요로 하는데 이것이 수식받는 문장의 주어이다. 이는 HPSG의 사격성 위계에 의한 통제 및 결속 이론의 설명 방법과 일치한다. 의미역 기반의 이론으로는 일관된 분석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수식받는 문장이 수동화되면, 능동문의 주어가 수동 어휘 규칙에 의하여 수동문에서 전치사구의 목적어로 치환되기 때문에, 분사 구문 서술 전치사가 하위범주화한 범주의 통제자가 수식받는 문장의 주어라는 것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박병수, 이기용, 강범모. 1990. 「영·한기계 번역을 위한 어휘 형태 및 통사 구조의 영한대조 분석」. 한국과학기술원 시스템공학센터.
- 임경섭. 1993. 「영어 수식어 구문에 관한 영구--핵어중심 구구조 문법(HPSG)적 접근」.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Barlow, M. 1988. *A Situated Theory of Agreement*.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Borsley, R. D. 1987. Subjects and Complements in HPSG. *Technical report no. CSLI-107-87*. Stanford: Center for the study of Language and Information.
- _____. 1991. *Syntactic Theory: A Unified Approach*. Britisch Library Cataloguing in Publication Data.
- Chomsky, N. 1980. On Binding. *Linguistic Inquiry* 11: 1-46.
- _____.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Foris.
- _____. 1986b. *Barriers*. Cambridge, MA.: MIT Press.
- Daniel L. F. 1985. The Syntax of Switch-Reference. *Linguistic Inquiry* 16: 35-55.
- Devlin, K. & C. College. 1990. *Logic and Information Volume 1: Infos and Situations*. to appe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monds, J. E. 1987. The Invisible Category Principle, *Linguistic Inquiry* 18: 613-632.
- Gazdar, G., E. Klein, G. K. Pullum & I. A. Sag. 1985. *Generalized Phrase Structure Grammar*. Oxford: Blackwell's an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Jackendoff, R. 1977a. *X'-Syntax: A study of phrase structure*. The Linguistic Inquiry Monograph Series, 2. Cambridge, Mass.: MIT Press.
- _____. 1987. The Status of Thematic Relations in Linguistic Theory. *Linguistic Inquiry* 18: 369-411.
- Kong, Y. I. 1981. *Perceptual Nature of Pronoun Comprehension in English*. Doctoral Dissertation. Kyung Hee University.
- Langacker, R. 1969. On Pronominalization and the Chain of Command. In Reidel and Schane. eds., *Modern Studies in English*. Englewood Cliffs, PP. 160-186. N.J.: Prentice-Hall.
- Lasnik, H. 1976. Remarks on Coreference. *Linguistic Analysis* 2: 1-22.
- Lees, R. & Edward K. 1963. Rules for English Pronominalization. *Language* 39: 17-28.
- Levinson, S. C. 1983. *Pragma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ollard, C. & I. A. Sag. 1983. Reflexives and Reciprocals in English: An Alternative to the Binding Theory. *WCCFL* 2: 189-203.
- _____. 1987. *Information-Based Syntax and Semantics, Volume 1: Fundamentals*. CSLI Lenter Notes Series No. 13. Stanford: Center for the Study of Language and Information.
- _____. 1992. Anaphors in English and the Scope of Binding Theory. *Linguistic Inquiry* 23: 261-303.
- _____. 1992.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Unpublished manuscript.
- Postal, P. 1971. *Crossover Phenonema*. New York: Holt, Reinhart and Winston.
- Reinhart, T. 1981. Definite NP Anaphora and C-Command Domains. *Linguistic Inquiry* 12: 605-635.
- Larson. R. K. 1985. Bare NP Adverbs. *Linguistic Inquiry* 16: 595-621.
- Ross, J. R. 1967. *Constraints on Variables in Syntax*. Doctoral Dissertation, MIT. Bloomington, Indiana: Indiana University Lingulistics Club.
- Stowell, T. 1981. *Origins of Phrase Structure*. Doctoral dissertation. MIT: Cambridge, Mass.
- Williams, E. 1980. Predication. *Linguistic Inquiry* 11: 203-238.
- _____. 1983. Against Small Clauses. *Linguistic Inquiry* 14: 287-308.